

11월 06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0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오바마효과 실종 [다우: 9,139.27pt (-5.05%)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경기부양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의 경기악화를 막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오바마 효과`를 하루만에 잠재웠음.
[유럽마감]실적악재...' 오바마 효과' 눌러	5일 하락출발한 유럽주요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 발표가 이어지며 하락마감. 이날 영국 FTSE1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4%내린 4,530.73을, 독일 DAX 30지수는 2.11% 하락한 5166.87을 각각 기록. 프랑스 CAC40지수도 1.98% 내린 3618.11로 마감.
고용한파	미국의 10월 민간부문 고용이 6년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틀 뒤 발표되는 노동부의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이날 ADP의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고용 감소폭이 전월의 2만 6,000명(수정치)에서 15만 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음.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0만 2,000명 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경기후퇴(recession) 시기였던 지난 2002년11월 이후 최저치 수준임.
美 10월 서비스경기 급랭	미국의 10월 서비스 경기가 11년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관리자협회(ISM) 10월 서비스(비제조업)지수는 전월의 50.2%에서 44.4%로 하락. 이 지수가 첫 발표된 1997년 이래 최저치로 월가 전망치인 47.5%를 밑돌았음. ISM 지수는 기준점인 50%를 밑돌면 경기위축을 의미함.
유가 급락, 수요 급감 우려 [WTI: \$65.43 (-\$5.23)	국제 유가가 폭등 하루만에 급락했음. 미국의 경기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된 결과로서 고용, 서비스 등 주요 경제지표는 잇따라 악화돼 경기후퇴(recession) 그림자를 더욱 짙게 했고, 예상밖 증가세를 나타낸 지난주 휘발유 재고도 유가 급락에 한몫했음.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112만배럴 감소해 월가 전망치인 -65만배럴을 크게 넘어섰음.
EU 무역위원장 "오바마 자유무역 정신 존중할 것"	블룸버그통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애쉬턴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오바마 당선자가 원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산업이 세계 경제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자유 무역도 그 중 하나"라고 강조.
유로존 9월 소매판매 전년비 1.6%↓	블룸버그통신은 5일 유럽지역의 9월 소매판매가 전년비 1.6% 감소했다고 유럽연합(EU)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 8월 대비로는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

제목	주요 내용
[도쿄마감]'오바마 효과'...닛케이 4.4%↑	오바마가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력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 이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46% 급등한 9,521.24를, 토픽스지수는 6.17% 편 966.91를 나타내며 장을 마감.
KT그룹 경영공백 상태	KT그룹의 핵심 CEO가 모두 구속, 사퇴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상황을 맞이함. 이번 사태로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주요 경영활동이 중단되고 있음.
삼성증권-로스차일드 손을 잡다	삼성증권이 세계적 투자은행인 영국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고 국제 IB 부문에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방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